문화전당, 중앙亞 무형문화유산 지킨다

EBS·유네스코아태센터와 몽골 등 5개국 다큐·책자 제작

실크로드 구술 서사시·키르기스 수공예 문화 등 보존 시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등과 아시아 지역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에 따르면 문화전당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허권·아태센터)와 아시아지역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협업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화전당은 이를 위해 최근 EBS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아태센터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보유 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의 첫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중앙아시아, 몽골 등을 포함한 5개국의 지역별 무형문화유산을 다큐멘터리 3편으로 제작, 방송한다. 각국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을 약 10편씩 제작하고 보급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영상, 다큐멘터리는 국가별 영상 디브이디(DVD) 패키지로 제작돼 홍보 및 교육용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 대한 내용과 사진 등을 담은 책자도 발간된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전당에서 사진전, 영상전, 출판전시회 등도 개최된다.

문화전당 등이 영상물과 기록물 제작에 나선 것은 중앙아시아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고대 무역로인 실크로드가 지나던 중앙아시아는 구술 서사시가 많이 전해 내려오는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고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알라 키이즈와 쉬르닥'이라 불리는 키르기스의 전통 펠트 카펫 아트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운영비전에 따라 사라져가는 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영상으로 남겨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

문화전당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기록해온 한국이 이번 사업에서 인류 공통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한껏 발휘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고 있다.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이번 한국교육방송공사, 아태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아시아 문화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사진 왼쪽)은 최근 EBS 본사 대회의실에서 EBS, 아태센터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키로 하는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전당 제공〉

광주시, 발주사업 계약심사로 104억 절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예산 104억원을 절감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시 본청 각부서와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이 심사 요청한 공사 337건 1847억원, 용역 101건 493억원, 물품구매 98건 159억 원 등 총 536건 2499억원의 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계약심사를 했다.

그 결과 시가 발주하는 사업 331건 1544억원을 사전에 원가심사해 발주 전 63억원을 절감하고, 공사·공단 발주 사업 62건 491억원을 원가심사해 16억원 절감했다. 자치구 발주 사업 143건 463억원에 대한 원가심사에서 25억원 절감, 총 10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된 예산은 청년일자리 창출, 먹거리 산업육성 재원 등 시 재정운용 극대화 하는 재원 등에 재투자됐다.

시는 발주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 인력을 배치해 ▲설계서 간 불일치 여부 ▲원가계산 작성방법 적정성 ▲표준품셈 등 대가기준 적정성 ▲각종 법정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산출물량의 적정 산출여부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원가 심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사전 계약심사를 활성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저소득층 자녀 1만명 무료 외국어 교육

㈜나래교육, 광주시에 전용 홈페이지 기부

광주지역 저소득층 자녀 1만여 명에게 외국어 무료 수강 서비스가 제공된다.

광주시는 (주)나래교육(대표이사 이명신)과 함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자녀 1만여 명에게 오는 3월부터 1년간 온라인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어학복지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수강생들은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된 학습자 전용 배너를 통해 교육받게 된다.

이번 어학복지 사업은 광주시가 시민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당당한 시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가 외국어를 학습하고 어학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나래교육에 어학 학습권 기부를 제안해 성사됐다.

(주)나래교육은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광주시에 60억~72억원 상당의 저소득층 자녀 1만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1년 어학 학습권(영어, 중국어, 일본어)과 광주시 학습자 전용 홈페이지(누리집)를 개발해 기부키로 했다.

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2월초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와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누리집 www.gjwf.kr)에서 사업을 안내하고, 광주복지재단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3월 초 어학복지 대상자가 선정되면 시청에서 윤장현 시장과 이명신 ㈜나래교육 대표이사, 학습대상자 대표 등이 참석한 어학학습권 기부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주)나래교육은 지난 1998년 설립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외국어 교육기업으로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 광주시 등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유료 온라인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명신 대표이사는 "장기불황의 여파로 교육업계가 많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고 이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작은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보건환경연, 복지시설에 '안심 농산물' 지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검사에서 안전한 것으로 판정된 농산물 2000여 상자(3000만원 상당)를 자치구에서 추천한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6곳에 1년간 무상 지원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농수산물검사소 개소 이후 해마다 잔류농약 검사 후 안전한 잔여 농산물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 목적으로 소외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5개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

농수산물검사소는 서부 및 각화도매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연간 3500건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적합 농산물 36건, 2.8톤을 즉시 압류·폐기해 사전에 유통을 차단,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잔여 농산물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매시장 경매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산구, 주민 주도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점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새로운 동(洞) 복지 추진을 위한 체제 개편에 나선다.

광산구는 "오는 26일 송정2동을 끝으로 21개 동 전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용, 문화, 교육 등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분야에 복지 서비스 초점을 맞추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을 줄이자는 것이 주 임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산구가 그동안 추진했었던 '투게더광산' 모델을 사례로 참조하여 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정부의 법률 제정에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11일 운남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처음 출발하여 각 동에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한 주민을 위원으로 영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위원 구성도 의사, 종교인, 복지시설 관계자, 교사, 직장인 등 다양하게 구성해 현장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안전하고 깨끗해진 솔머리마을 기대하세요

국민안전처 공모사업…마을별 3억8000만원 지원

공·폐가를 단장하는 등 우범지역을 정비하는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가 우범 지역을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광산구 어룡동 솔머리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은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마을별로 국비 3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주민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에서는 광산구 어룡동 솔머리 마을과 서구 유덕동 유촌·덕흥 마을이 선정됐다.

솔머리 마을은 사업 초기에는 주민들이 성과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범죄 우범지인 폐가(공가)를 정비해 주민공동 텃밭과 화단으로 조성하고, 어두운 우범 골목에 LED 등이 설치되면서 마을이 밝아지고 골목길 벽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사라지는 등 주민의 의식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은 용아 박용철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의 탄력을 받아 생가정비사업도 한창이다. /채희종기자 chae@

7층 상가건물매매

▶ 1층 (커피숍)
▶ 2층~5층 (사우나, 주택)
▶ 6층~7층 (설계사, 건축사)

※ 은행대비 최고 안정적 상가건물
※ 공실 없음 / 올시설 / 월세 책임보장

☆ 월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1억5천/ 융6억)

매가 16억
(7층상가건물, 사우나,커피숍 직영가능하므로 수익률 상승)

※주인 직매 010-6670-9800 / 010-7384-7800

신축상가 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 투룸 2개)
4층 (주택)
(방 3개 ,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 다용도실)

☆ 보 5,000만 월 500만 ☆ (융1억2천)

매가 6억 8천만
※ 상가겸 원룸건물이므로 장래 갑어치 상승 확실히 있음

010-6834-4800 010-6832-9700